

고흥군, 명문학교 육성에 174억 투자한다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올해부터 교육경비 대폭 지원 담임교사 수당 신설·고교 입학 축하금·귀향인 자녀 장학금 등

고흥군이 앞으로 5년간 174억원을 지원해 '명문 학교'를 육성한다. 특히 담임교사 수당을 신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여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한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교육경비를 대폭 지원한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과 간담회·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수립됐다.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앞으로 5년간 총 174억여원(연간 35억원)을 투

입해 6대 중점과제와 50개 단위 사업을 시행한다.

눈에 띄는 사업은 지난해 전남 최초로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30만원)을, 귀향인 자녀에게 어울림 장학금(3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교사들의 노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한다.

성적우수·다자녀·다문화·귀향인 자녀 등 8개 분야에 장학금 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특성화고 취업대비 프로그램 등 중·고등학교생 진로·진학 활동에 3억

1000만원(10개 사업)을 지원한다.

또 심화 멘토링 및 방과후 학습, 학생 영어·한국사 경시대회, 중고생 주요 과목 아카데미, 고등학교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료 지원 등 학력 향상을 위해 10억3000만원(5개 사업)을 투입한다. 중학생 국제교류, 고등학교 국외체험, 역사문화 탐방 등 바른 인성 함양 지원 사업(1억원)도 펼친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학생 기숙사비, 작은학교 살리기 등 교육복지 사업에 26억7000만원(31개 사업)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우수교사 양성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교직원 국외체험, 교사의 날(힐링데이) 운영, 우수교원 표창 등 6개 사업을 신설해 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 역사탐방을 통한 인성교육, 청소년상담 북

지센터 운영, 우수 대학생 배출 인센티브 등 학교 지원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급액을 학교 자체 장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초·중학생들의 보편적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혁신교육 지구 운영, 내고장 학교 보내기 진로·진학 박람회, 방과 후 드론교실 운영, 초등 영어전담 강사 지원 등 10개 사업 6억7000만원을 고흥교육지원청에 지원키로 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2020년을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원년으로 삼아 학생·학교·행정·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명문학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곡성군 제공>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곡성군, 농가 현장컨설팅

곡성군이 전문교육을 통한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사업에 나섰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9일 곡성농협 APC 회의실에서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컨설팅을 했다. 이 사업은 생산농가의 고품질 멜론 계획생산 및 계획출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곡성군은 고정거래처를 확보해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정량의 고품질 멜론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농가들에게 고품질 멜론 생산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는 농협경제지주 컨설팅지원국장인 나종대 박사가 멘토로 나서 멜론 생산농업인 15명에게 노하우를 전수했다.

나 박사는 컨설팅을 통해 관행 농작업에서 탈피한 고품질 멜론 생산 재배법을 교육하고, 회원 상호 협력 및 재배 매뉴얼 준수를 강조했다.

또 멜론 정식 전 토양 분석, 밀식 방지 등 분담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서로 공유했다. 이후 농가 포장으로 자리를 옮겨 멜론 생육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별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보성군, 군민에 무료 보급

1인당 5매씩 4만2000장 지급

보성군이 자체 제작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4만2000장을 모든 군민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24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민 1인당 면 마스크 1매와 교체형 필터 5매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전달한다. 지난달 5일 모든 군민에게 면 마스크(구매)를 지급한 데 이어 두번째 면 마스크 전달이다.

지난 23일부터 지급한 면 마스크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9일 동안 진행된 면 마스크 제작에는 김철우 보성군수를 비롯해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지회 등 10개 사회단체 100여 명이 재능나눔 봉사로 힘을 보탰다.

보성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스크 재료비를

지원했다.

자원봉사자 최모씨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은 내 손으로 지킴으로써 마음으로 마스크 제작에 참여했다"며 "작은 노력이지만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보성군은 지난 1월 말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11만 장을 배부했다.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군이 보유한 마스크 2000장을 임산부와 고위험군에 긴급 지원했다. 장도·해도 등 도서지역에도 마스크 700장을 전달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가 지난 23일 보성읍에서 한 주민에게 자체 제작한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보성군 제공>

구례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만원으로 집 짓기' 나눔 캠페인

구례군은 지난 2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와 빈곤아동의 주거 지원을 위해 '만 원으로 집 짓기' 나눔 캠페인 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재단은 3~4월까지 두 달간 '아빠가 되어준 구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부금 7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주거빈곤 아동들을 위한 '만 원으로 집 짓기' 모금 캠페인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만 원으로 집 짓기' 캠페인을 통한 마련한 후원금은 구례군 아동 주거 신축 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어른의 당연한 의무"라며 "빈곤아동의 주거 지원을 위해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타인능해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수봉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장은 "구례군과 어린이재단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아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코로나 등 감염병 취약 섬마을 챙긴다

전국 첫 체온계 1000개 등 배부

고흥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근 섬지역에 감염병 예방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동시간만 1~2시간이 소요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아 이마저도 어려움 감염병에 취약하다.

고흥군은 시산도·독량도·연흥도 등 섬지역 13곳에 거주하는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일회용체온계 1000개를 배부했으며, 마스크 2000개, 손소독제 2000개, 향균비누 130개도 전달했다.

고흥군은 현재까지 주민들에서 마스크 6만7850



개, 손소독제 1만5300개, 살균제 8500개, 향균비누 3500개를 지급했고, 515개 마을에 일회용 체온계 5000개를 추가 지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 해양폐기물 처리 등 녹동항 정비사업 추진

폐기물 집하장 이전도

고흥 녹동항이 청정항구로 거듭나고 있다. 도양읍 번영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녹동항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이같은 노력에 고흥군도 녹동항 정비사업에 동참했다.

고흥군은 항구·해안가·물양장 등에서 수거된 페어구·페어망 등을 처리해 해양오염과 악취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8600만원을 투입, 해양폐기물 240t을 처리하는 녹동항 정비사업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녹동항에는 고흥군수업이 운영하는 해양폐기물 집하장이 있다. 도양읍 마리아노와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연수원 이용

객과 북촌마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흥군은 이달 중 집하장에 쌓인 페어구·페어망 150여t을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보관된 폐스티로폼 200㎡는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이용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해양폐기물 집하장을 도양읍 잠두마을로 이전하는 등 녹동항 정비사업도 추진한다.

이재호 도양읍장은 "삶의 터전이자 미래인 바다를 지키고 보존하기위해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경정화 활동이 일상화돼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